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7월 26일(금)
--(음력 6월 21일)--
Пятница
26 июля 2024 г.
№ 29 (1209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7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러시아에서 상업 분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한다. 이 분야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많은 주민들이 일하고 있다. 사할린동포도 적지 않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얄'쇼핑 센터 상점들에서 일하고 있는 박태순 ("노보 모다"매점), 림 이리나("쿠프치하"매점), 김명순("그레이스"매점)씨는 상업분야에서의 경력은 15년-20년 된다.

(이예식 기자 촬영)

존경하는 사할린주의 상업 분야 종사자 여러분!

상업인의 날을 맞아 무역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7월의 네 번째 토요일은 상업인의 날로 올해는 7월 27일(토)에 기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사할린의 상점들에는 다양한 상품들로 가득하여 지역 주민들이 분토와도 단절된 느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는 상업 분야에 4만 명이상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에서 소비시장은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고객을 위한 첨단서비스기술을 도입하여 고가격과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매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획에도 적극 참여하며, 특수군사작전의 참전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상업 분야의 대표자들이 전문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포들의 요구들과 배려를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업 분야 종사자의 날을 맞아 사할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시는 사할린과 쿠릴의 상업 근로자와 원로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성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사할린주 정부-

<2024- 아르히펠라그>집중 기획-교육,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폐막

7월 20일(토) <2024 - 아르히펠라그> 집중 기획-교육 폐막식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됐다. 2주간 우수 전문가들이 실생활에서 무인기 적용 계획안을 연구하고, 시험 비행을 하며, 자신들만의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코르사코브 지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10개 이상의 행사장들이 펼쳐졌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아르히펠라그>교육행사의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덕분에 2주간은 생산적이고, 흥미롭고, 유익했다. 우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인 무인기산업에 초석을 놓았다.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우리는 함께 배웠고, 시험 비행을 해보고, 사이버 경연도 진행하며, 드론 적용 계획안을 완성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전국에 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작업이 좀더 효과적이 되도록 매해 여기서 대규모 포럼을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곳에 학자들과 설계자, 산업인들이 모일 예정이다. 우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과 기획을 가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7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아르히펠라그>에 전국 78개 지역들에서 3천 50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올해 <아르히펠라그>의 핵심 주제는 항공 및 해양 무인기 개발, 인공지능 적용, 신에너지, 특히 수소 기술이다. 2주간 산업의 전문가들은 사회적 발전, 기대수명 연장, 생태환경과 기후 개선 분야에서 무인 항공기 활용에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여 사할린과 쿠릴 주민을 비롯해 러시아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200개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략주도청의 스웨틀라나 추프세와 청장은 "우리가 사할린에서 함께 보낸 11일 동안은 정말 놀라웠다. 바로 여기에서 미래의 경제, 저공비행, 무인기가 생산되고 있다."

(3 면에 계속)

단신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와 동력 시설에 대테러 보안책 강화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와 동력 시설에 대한 대테러 보안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사할린주 동력-연료단지 시설과 상수도 시설의 보안 개선에 대한 문제들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지역 대테러위원회 회의에서 검토되었다.

특별주의구역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석유·가스 생산기업, 화력발전소, 전기발전소, 상수도 시설이다. 연료·동력단지와 주택공공사업부 시설에는 기계적 기술장비 보안과 물리적 보호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된다. 무인기를 이용한 불법 방해 공격으로부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이에 비정기적 교시와 직원들의 지식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수군사작전 지역 장병들에게 사할린에서 새로운 장비 전달

사할린주 정부가 돈바스에 있는 사할린 장병들에게 필요한 특수장비와 군 보급품 세트를 또 전달했다.

앞으로 특수군사작전 지역에 최신형 드론과 기타 필수 도구들이 보급될 전망이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68군단 사령부와 만남을 가진 가운데 사할린 장병들의 필수 군 보급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전선으로 보급되는 정기화물은 여러 종류의 드론과 통신장비들이다.

사할린의 '오스트로브나야' 양계농장을 위해 9만 마리의 병아리 도착

'오스트로브나야' 양계농장을 위한 병아리들이 2차로 도착했다. 약 9만 마리의 '수퍼 닉' 병아리 품종이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사할린으로 무사히 도착했다. 겨울철 전에 알을 낳기 시작하고, 2025년 봄에는 50만 마리가 산란계가 되어, 새해 즈음에는 8백만 개의 달걀을 판매할 수 있을 거라 전망된다.

사할린주 선거일을 맞아 '모바일 선거' 구축

주지사 선거일에 사할린 지역 밖에 있는 사할린 주민들은 '모바일 선거' 기구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 다기능센터, 지역 선거위원회에서와 '고스우슬루기'포털을 통해 2024년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편리한 방법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유권자 목록에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2024년 8월부터 9월 2일까지는 선거위원회 모든 구역에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선거위원회와 구역 선거위원회에서는 평일 16시부터 20시까지, 휴일은 10시부터 14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IIP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심리학 상담자 권 스웨틀라나: "목표가 있으면 기회도 있다"

7월 초에 사할린에서 진행된 극동미디어삼미트(극동언론인대회)에서 우연히 한 여성 동포분과 알게 되었다. 새고려신문사 코너를 찾아 한민족지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어 얘기를 나누면서 취재를 하게 되었다.

코르사코브 출신으로 30대 후반인 권 스웨틀라나 예제노브나는 현재 심리학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30세가 넘어 새 직업에 들어선 그의 길이 인상적이다.

스웨틀라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사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며 좋아하는 것도, 성격도 그렇다고 한다.

아버지는 건설 분야의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개인사업을 하는 그녀의 아버지는 딸 셋 중에 둘째 딸인 스웨틀라나를 사업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막내는 너무 어렸고 큰딸은 사업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스웨틀라나는 사할린 국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아버지를 많이 따르며,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도록 노력했다고 한다. 이렇게 스스로 가족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학 4학년부턴 그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이미 건축자재 매점을 열고 운영하게 되었다. 여성적 사업은 아니었다. 그래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장사가 안정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었고, 교육에 대한 의욕이 넘친 스웨틀라나는 계속 사업을 배우고 있었다.

결혼도 하여 슬하에 아들도 있는데 남편과 일찍 이혼을 하여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거의 혼자 지고 있다고 한다.

스웨틀라나의 부친은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이 너무 어려서 스웨틀라나는 운영하던 사업을 접기로 했다.

"건설 분야는 먼저 투자를 해야 사업이 돌아간다 하니 '과연 해낼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아프셨고, 또 제가 나중에 이혼을 하면서 그런 결심을 했죠."라고 스웨틀라나가 설명했다.

친구의 추천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명품 남성의류 매장에서 일반 판매원으로 취직했는데 활동적이고, 아이디어가 많고 해서 빨리 승진을 해 매점 관리인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그녀가 상점에 취직한 이유는 "한 편으로는 처음엔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는 일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녀 돌봄이 필요했고, 월급이 꽤 괜찮았어요. 특히 관리인으로서 근무를 시작했을 때, 이 분야가 저에게 낯선 분야였기 때문에 연구를 좀 많이 했지요. 고객들이 남자들이어서 일이 할 만했습니다. 제가 항상 남자와 일하는 데 익숙해 여성의류 가게에서는 아마 일하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스웨틀라나가 말했다.

4년간 관리자직을 포함해 그는 이 분야에서 5년을 일했다. 많이 배우긴 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딱히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과연 계속 해야 하는 고민을 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생산업체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지 않는



가?'란 제안에 월급이 훨씬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목재생산업체에 매니저로 취직하게 되었다.

"제 전공이 생산업체 경영이었거든요. 딱 제 전공에 맞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를 생산하고 물품이 나오는 과정이 마음에 들었어요."라고 스웨틀라나가 그 이직하게 된 결정을 설명했다. 건설 분야와도 관련된 목재가공업이었다.

말로는 매니저였지만 그는 여기에서 안 하는 게 없었다. 인사과 일도 맡고, 광고 관련 일도 하고, 경영 및 운영 등이었다.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업을 해보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뛰었다.

밤 늦게 일하고 급하게 처리하는 게 있으면 처리하고, 근무자로서의 행동과 태도를 지키며 사업이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바로 이것이 자기 잘못이란 생각이 들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게 되었고, '이 일을 그만두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수 있을까?'란 고민도 많아졌고,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까지 걸리게 했다. 그래서 심리학과 관련된 책과 자료를 찾아 연구에 빠졌다.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사실 학창시절에서부터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이걸 전문적으로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하면서 대학에서 실용 심리학 교육을 받았다. 현재는 상담교사-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사할린국립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반년이면 대학원 코스도 마친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학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다. 개인사업으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으로 등록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무소를 열고 심리학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스웨틀라나는 주로 그룹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과 여러 번 신기계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여 학교들에서 실습을 할 때 주로 9-11학년생들을 상담했다.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 교육기관에 공식 심리학 상담교사로 취직할 생각을 한 가운데 이미 두 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와 현재 생각 중이다.

스웨틀라나는 사회적 기획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하나의 프로젝트를 신청 중인데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하나 기획은 사할린주 심리학자협회 회장과 함께 새

로 생긴 한 휴양소에서 주말마다 변신게임, 마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14살된 아들에 대해 생각이 많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항상 지지하고 있다. 사실 5년전에 재혼할 때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 아들이 계속 코르사코브 학교를 다니고 싶다 해서 코르사코브에 새 집을 마련했다. 아들은 엄마,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닮아 창작적 재능이 많다. 노래도 잘하고, 시를 잘 읊고, 주내 여러 콩쿠르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이 있다. 특히 연기력이 뛰어나 배우한테서 따로 교육을 받기도 했다. 아들 막심은 생후 11개월부터 코르사코브 아동창작회관을 다니고 있다. 행사 사회도 잘 보고, 케이팝 춤도 추고 - 좋은 성적으로 그는 얼마전에 모스크바를 무료로 방문하게 되었고, 연기자로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캠프장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아들은 스웨틀라나에게 있어 앞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엄마의 자랑거리다.

스웨틀라나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름답다.

스웨틀라나가 평소 좋아하여 지표로 삼는 문구들은 "기적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기회도 있다", "행동을 하면 항상 결과가 나온다",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지지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제 10회 <사할린의 날개> 축제에 방문객 6만5천 명 모여

7월 19일(금)-21일(일)까지 코르사코브 지역 푸쉬스티 간비행장에서 제 10회 <사할린의 날개> 비행·음악·스포츠 축제가 열린 가운데 올해 축제에서 몇 개가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첫 번째 기록적인 것은 기간이다. 3일 내내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누구나 마음에 드는 행사를 찾아갈 수 있었다. 방문객들을 위해 단순히 행사만 연 것이 아니라 축제는 전체적으로 비행과 과학과 예술과 스포츠의 거리가 되었다. 관람객들은 에어쇼, 낙하산 쇼, 러시아 오토바이 프리스타일 창시자이자 레드 벌(Red Bull) 팀의 회원인 알렉세이 콜레스니코브의 오토바이 쇼, 스포츠 활동, 군사 장비 전시회와 활동교실, 강연, 놀이, 연극, 열기구 비행, 대규모 화려한 불꽃놀이 등등이다.

축제의 일환으로 볼 만한 스포츠 경기들이 진행된 가운데 그중 하드 엔듀로 '노 플레이스 투 런(No Place to Run)' 유명 산악오토바이 경주자들의 경주 개막이다. 경기 후 국내 각지에서 온 라이더들은 이곳을 국내에서도 우수한 경기장이라고 평했다. 또한 '푸쉬스티 트로피' 오프로드 차량 경주와 6년 만에 열리는 첫 자동차 드리프트 축제도 진행되었다.

두 번째 기록적인 것은 축제 방문객의 수이다. 올해 <사할린의 날개> 행사에는 사할린 주민들만 아니라 각 지역들에서 방문해 6만5천 명이나 모였다.

사할린의 축제는 유명 스타들 덕분에 이미 오래전부터 극동 지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사할린의 날개> 축제는 이렇게 기록들을 경신했다. 음악축제로는 막심 자야츠, 록 그룹 '네탄ץ'와 '아니마썬', 수르가

노와와 오케스트라, 이고리 라스페라예브, '와-반크', 치체리나, 사할린, 니콜라이 아니시모브, 필롯, 라디오 타로크 등 10개의 그룹들과 록 스타들이 자신들의 창작곡들로 음악 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65 тысяч гостей собрали десятые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Юбил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авиации, музыки и спорта прошел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19-21 июля. В этом году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обновили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своих рекордов.

Первый рекорд – это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а подготовили три полных дня с насыщенной и разнообразной программой. Найти занятие по душе мог каждый.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работали не просто площадки, а целые улицы – авиации, науки, искусства и спорта. Зрителей ждали авиашоу,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арашютистов, мотошоу с родоначальником мотофристайла в России и членом команды Red Bull Алексеем Колесниковым, спортивные активности, выставка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мастер-классы, лекции, игры, спектакли, завораживающие полёты на воздушных шарах, грандиозный фейерверк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прошли зрелищные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реди них – пролог знаменитых мотогонков хард эндуро No Place to Run, по итогам которого райдеры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назвали полигон лучшим в стране, а также внедорож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ушистый трофи» и первый за шесть лет фестиваль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дрифта.

Второй рекорд – количество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В этом году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посетили 65 тысяч остротитян и гостей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ахали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уже давно счита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том числе и благодаря своим хедлайнерам. В этом году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обновили рекорд и здесь. Любителей музыки своим творчеством порадовали сразу десять хедлайнеров – Максим Заяц и группа «Нетанцы», «Анимация», Сурганова и оркестр, Игорь Растрьяев, «Ва-Банкъ», Чиче-

рина, SAHALIN, Николай Анисимов, «Пилот» и Radio Tarok.

쿠릴열도에서 <군함> 텐트 캠프 개최

쿠릴열도에서 <프리깃함(군함)> 향토역사 텐트 캠프 첫 교육일정이 시작되었다고 유즈노쿠릴스크 지역 행정부가 전했다.

학생들을 위한 개회식에 학부모들과 형제, 자매들이 참석했다. 해마다 열리는 이 캠프의 장소가 증가하고, 장애물 코스도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이 지역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구역을 울타리로 치고, 새로운 식당도 개장했다.

<군함> 캠프 관장 알렉세이 고로잔킨은 "우리 학생들이 잘 휴식하고,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우리는 팀과 함께 이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캠프 준비에 헌신을 다하고, 교육일정 기간에 일할 우리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캠프에 들어가면서 학생들과 지도자-선도원들이 선서를 하고, 창작 노래들을 선보이며, 지역 전문가들이 준비한 도전 게임이 진행된 가운데 캠프에 남학생과 여학생 50명이 2주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들은 향토를 연구하고, 쿠나쉬르섬을 여행하고, 스포츠를 즐기며, 경쟁도 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캠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На Курилах открылся палаточный лагерь «Фрегат»

На Курилах дали старт первой смене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палаточном лагере «Фрегат».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к детям прибыли родители,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Ежегодно в лагере 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расширяется полоса препятствий, этим лет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ткрыли новую столовую и огородили зону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детей забором.

(8면에 계속)

사할린주 한인협회, 제10회 청소년 역사 캠프 진행

지난 21일(일) 사할린주 한인협회·사할린주 한인청년회의 주최로 주정부의 지원 아래 제10회 청소년 역사 캠프가 열렸다. 개막식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번 캠프는 '나라의 역사는 나의 역사'란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캠프 참가자 25명에게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정부 사회적의사소통국 예고르 옴노브 국장, 사할린주 한인청년회 회장이자 이번 캠프 관장인 오 블라디미르 회장 등이 환영인사를 전했다.

해마다 개최되는 역사 캠프는 올해 14세-17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탐방과 사할린한인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여러 활동교실을 통해 한민족 문화와 지역 한인단체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도할 계획이었다.

역사 캠프 일정이 촉촉한 가운데 첫날에 참가자들은 담당 교원 일동과 활동을 보조하는 대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며, 문화센터 앞 사할린희생사망동포위령탑, 사할린한인이 중징용광부피해자추모비, 소련 영웅 김 예브게니 동상에 헌화를 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퀴즈도 진행했다. 그리고 점심에는 잡채 만들기 요리교실에 들어가고, 한인문화센터에서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했다.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역사 캠프장은 오호츠크에 마을에 있는 휴양소로, 학생들은 이곳에서 교육과 휴식 및 오락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러 행사 준비를 하면서 친목을 다졌다.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코르사코브 방향의 언덕에 있는 방향의 탐, 포자로스코에 마을(전 미주호 촌) 근처에 있는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를 찾아 강의를 들으며, 사할린 한인들의 비극적 역사를 접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사할린 국립대학교를 견학하고, 한인 사회단체 지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한인문화센터에서 펼쳐진 한민족문화에 관한 다양한 흥미로운 활동교실에 참여도 하고, 한민족의 대표적 스포츠인 태권도와 씨름을 접하며 전통 타악기도 익혔다. 또한, 캠프의 오락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는 다양한 퀴즈와 신나는 게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워터파크 방문 등이 일정에 포함되었다.

역사 청년캠프 '나라의 역사는 나의 역사'의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편안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며, 민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 큰 흥미를 갖게 했다. 또한, 역사 청소년캠프는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뜻이 맞는 사람들과의 소통하면서 많은 긍정적인 감동을 선사하며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남겼다.

(취재: 포구다예브 드미트리)

사할린, 사할린희생동포 위령탑에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No' 시위

사할린 동포사회를 아우르는 사할린한인협회 소속 사할린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이 6월 2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정문 앞 아리랑공원에 세워진 '사할린희생사망동포위령탑' 앞에서 서명서를 낭독하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반대' 시위를 했다.



사할린한인협회 소속 사할린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이 사할린희생사망동포위령탑 앞에서 서명서를 낭독하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반대 시위를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복자, 김세옥, 강영희, 박영자, 블라노환토바 갈리나, 정오수, 서인순, 강남순. (사진=사할린아리랑무용단) 2024.06.26.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자 단장은 "한국에서 보내주시신 아리랑연합회 성명서를 낭독했다.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 아리랑은 반인류를 상징하는 사도광산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제도에서 가족과 함께 외할아버지가 사할린에 끌려와서 다시 일본 탄광으로 이중징용을 당해 영영 가족을 못 만나고 일본땅에 묻히셨다. 우리 사할린 동포들은 누구에게나 이런 이산의 고통이 없는 가족은 없다. 사할린 가족사가 바로 일제의 강제징용의 역사이다. 그런 강제징용과 이중징용의 역사를 감추고,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올리는 신청은 중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박영자 단장의 가족사는 2022년 KBS한민족방송 체험수기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문체부 산하 기관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은 2015년 '군함도(하시마·端島)'의 등재 과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도광산이 소재한 니가타현의 역사를 소개한 '니가타현 백년(新潟の百年)'에 따르면 1943년 3월 기준 니가타현에만 최소 4422명의 조선인 남성이 거주했으며 이들은 발전소, 철도,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군함도에는 조선인 4000명이 강제동원 당했다. 그러나 생사 여부나 신원은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조선인 강제징용의 전체 규모나 명부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현장을 찾아가서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는 정부와 학계의 노력이 시급하다.

(출처: 국악 신문)

<2024- 아르히펠라그>집중 기획-교육,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폐막

(1면의 계속)

우리는 새로운 기획안과 새로운 정책과 생명공학 및 생활의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을 추천했다. 무엇보다 사할린주 정부와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에게 이 행사를 개최하여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참가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와 발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다. <아르히펠라그>의 일환으로 발표된 각각의 제안과 각각의 아이디어들을 우리는 계속 연구할 계획이다. 8월에 <아르히펠라그> 종결을 지으며, 국내 지도자들에게 결과를 발표하고, 근본적인 기획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공모되고 있는 연방기획을 위한 행사들을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2024-아르히펠라그>에서 탄생한 기획들을 국가기획

에 연결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참가자들은 국민의 보건, 복지증진, 가정지원, 각 사람의 잠재력 실현, 생활을 위한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안정적인고 역동적인 경제, 환경보호복지, 기술의 선진화 등 7가지의 핵심 방향을 지지했다. <아르히펠라그>에서 준비하여 사할린주에 제안한 새로운 사업과 기획들 중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진단 시스템 및 근골격계기구 교정이 포함돼 있다.

또 하나의 기획안 '말하는 도시'는 교통 이용의 편의성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제반시설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가깝고도 편리한 버스 정차 지점을 찾아내고, 대중교통의 번호를 설정하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아르히펠라그> 주최에는 국가기술주도 플랫폼, 사할린주 정부, 전략주도 청, 국가기술주도 기획 지원재단, 2035 대학이 나섰다.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맞아 본사는 사진공쿠르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사할린 한인 역사>,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사진.
- **출품수:** 3점 이상
- **사진규격:** 1,000x1600 픽셀의 JPG/JPEG 형식 파일 (5mb 이하), RGB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은 2024년 9월 27일. 우수 작품은 시상식에서 전시. 사진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ОБЪЯВЛЯ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Тема "Мо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от 3-х фото, формат JPG/JPEG, размер 1000x1600 пикселей, объем не более 5 МБ, цвет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RGB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а также выставл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27 сентября 2024 г. .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공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공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한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공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им Чен Ын принял российскую военную делегацию

СЕУЛ, 19 июля. /ТАСС/.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ринял военную делегацию РФ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Алексеем Криворучк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радиостанция «Голос Кореи».

По ее информаци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ас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ое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НДР и РФ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взаим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Лидер КНДР подчеркнул солидарность с Россией на ф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Украине, а также выразил поддержку Вооруженным силам РФ, которые борются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для защиты суверенных прав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указала радиостанция.

Ким Чен Ын отметил значение прошлой встречи, прошедшей в июне, и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дальнейшее углуб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19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Ф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ровели в Пхеньяне переговоры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й. По итогам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ов были заключены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а также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и соглаш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ная на границе двух стран.

Сахалинка стала «Почётным строителем России»

Начальнику отдела план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н Ен Се, работающей в ведомстве вот уже более 20 лет, присвоили звание «Почетный строитель Росс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строя.



ФОТО: МИНСТРО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а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а себя грамотным 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м, успешно применяющим накопленный за годы работы опыт и знан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оставленных перед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адач. В ведомстве отметили ее добросовестность при выполнении своей работы,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труда и большой лич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и отрасли. Заслуженную награду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удрость народа в коротких фраза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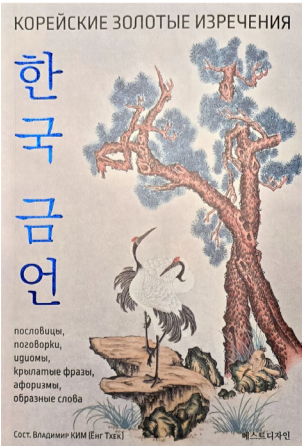
21 июля в Сеуле, на Каннаме прошла презентация новой книги Владимира Кима, изданной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KORYOIN GLOBAL NETWORK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MEDIA SARAM. «Корейские золотые изречения» – сборник корейских пословиц, поговорок, крылатых фраз, изречений, в котором все пояснения выполнен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Данный сборник Владимир Наумович готовил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чти 10-ти лет. Все иллюстрации выполнил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й книги молодой талантливый художник Михайло Цой. Мероприятие украсило выступление группы самульнори KGN "BLAST BEAT".

«Корейские золотые изречения»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сети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ов Гёбомунго (교보문고).

Сборник со скидкой 10%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через интэрне т-магазин Гёбомунго (교보문고).



Источник: https://t.me/koryoin_globalnet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ся молодеж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21 июл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10-го молодеж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История страны - моя истори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лагеря являетс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местно с РМ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на углубление знаний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изучение важнейших объектов культурного 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влечение интереса молодежи к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помощью организации молодежного летнего лагеря.

В этом году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лагер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15 девочек и 10 мальчиков возраста 14-17 лет. В роли вожатых у участников лагеря выступают активисты РМООСК, уже хорошо знакомые с историей и традици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школьников стала база отдыха в с. Охотском, откуда ребята практически ежедневно выезжали на различные экскурси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грамма лагеря получилась яркой и насыщенной. Ребята уж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увлекатель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ах, где их научили готовить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блюда, познакомили с основами корейских единоборств - тхэквондо и ссирым, а также попробовали научиться играть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В рамках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лагеря школьники посетили важнейшие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сторические объекты региона, такие как Гора грусти в г. Корсаков, памятник 27-ми невинно убиенных корейцев в августе 1945 г. вблизи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ныне Пожарское), побывали на лекц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вершили экскурсию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стретились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егиона.

В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лагеря вошли различные викторины на знание истории и традиций Кореи и увлекательные игры. Участники лагеря также посетили аквапарк "Акваси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лагеря "История страны - моя история" создали благоприятную, дружелюбную атмосферу,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у подрастающей молодежи растёт интерес к истории своего народа, национальным традициям и культуре. Кроме того, в процессе получения новых знаний, дети весело провели время и получили массу положительных эмоций, а также обрели новых друзей, что делает участие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молодежном лагере незабываемым.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Истор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уденческой общины в Томске

В Томске на Южном кладбище имеется одно интересное захоронение. Табличка на металлическом памятнике захоронения гласит: «Цой Сунхи (02.12.1929-19.07.1948). Спи спокойно, дорогая. Твое дело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нам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й Кореи. От студентов-корейцев, уезжая из Томска. 6 октября 1949 года». История этого памятника такова...

5 октября 1946 года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Томск прибыло 99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30 лет) для получения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реди них было 68 юношей и 31 девушка.

Поселили их в новом корпусе Томского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хотя никто из прибывших в этом институте не учился. Студентов прикрепили к трем вузам: Томскому электромеханическому институту инженеров, Томскому медицинскому институту и Томскому педагогическому институту. Также студенты-корейцы учились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ое время в Том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бучали корейцев,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русскому языку. Самая большая сложность состояла в том, что по-русски никто из студентов не говорил, а в Томске в то время не было ни одного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 К иностранной молодежи были прикреплены политруки, в том числе из числа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удентов томских вузов.

Руководств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общиной осуществлялось комитетом землячества,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 из политбюро, академбюро, культбюро и

бытбюро. Возглавлял комитет землячества студент-отличник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Томского пединститута Хан Ир Су.

8 августа 1947 года томски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посетил писатель и политический деятель Хан Соль Я, впоследствии ставший министром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КНДР.

Жилось корейцам тогда в Томске не сладко. Местные повара воровали продукты, выделенные для их питания. На всех не хватало фуфаяк и валенок. Во время каникул большинству студентов предоставлялись путевки в санатории. Корейцы осваивали неизвестные им зимние виды спорта. Одна из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к, будучи в доме отдыха, решила съехать с горы на лыжах, и, «не умея регулировать свое движение», ударилась об телеграфный столб и сломала обе ноги.

Сложно проходила и климатическая адаптация у корейцев. Было много пропусков по болезни, особенно зимой.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было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уже больными приехавших в Томск, двое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томскому климату, у одного была глистная инвазия, не поддававшаяся лечению.

Впоследствии обуче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в Томске прекратилось по официальной версии из-за сибирского климата и болезней. Не менее важным было нача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1949 году Сибирского химического комбината и запрет иностранцам въезжать в Томск.

(По материалам ЦДНИ ТО).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РК предложил пересмотреть Конституцию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У Вон Сик предложил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ект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страны и провести референдум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местными выборами в 2026 году. Выступая 17 июля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Дня Конституции, У Вон Сик заявил, что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22-го созыва должно добиться внесения кардинальных поправок в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траны. Он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подготовке поправок. Если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и парламентарии встретятся лично и проведут широкомащтабные дискуссии, вероятность пересмотра Конституции будет намного выше, - добавил У Вон Сик. Прошлые попытки пересмотреть Конституцию 1987 года, которая ограничивает пребывание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одним пятилетним сроком, потерпели неудачу из-за противоречий между политическими силами, а также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и парламентом.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РК должны одобрить не менее чем две трети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а затем большинством участников общенационального референдума, в котором должн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имеющих право голоса.

Новы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избран Хан Дон Ху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избран бывший глава врем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Хан Дон Хун. По итогам внутрипартийн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и опроса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он набрал 62,84% голосов.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с большим разрывом Вон Хи Рён - 18,85%. Далее следуют На Гён Вон - 14,58% и Юн Сан Хён - 3,73%. Хан Дон Хун в своей речи заявил, что не должно быть политики, противоречащей воле народа. В этой связи все члены партии должны в своей работе ориентироваться на желания народа. Он отметил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сть мониторинга настроений в обществе и поддержания продуктив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политическими партиями. Хан Дон Хун обещал уважать мнения тех однопартийцев, которые не поддержали его кандидатуру, а также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тивников.

Стандарты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РК получ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татус

Разработанные в РК стандарты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и управления данными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сти технологи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олуч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татус.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Международ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ISO) 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ая комиссия (IEC) принял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по двум запросам о «стандартах работы с данным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целя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ум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были разработаны Корейским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 институтом электроники и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й. Данные стандарты предоставляют методы и средства оценки, обработки и улучшения качества данных в процессе разработки моделей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тметили, что данное событие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речь идёт о первых в мире стандартах, нацеленных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сегменте работы с данными.

В Париж прибыла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спортивной делегации РК

Вечером 20 июля в Париж прибыла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олимп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РК,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й 30 спортсменов и 18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и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Олимпиады состоится 26 июля, н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нескольк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пройдут до офици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25 июля пройдут мужские и женские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рейтинговые раунды по стрельбе из лука. В тот же д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андболистки сыграют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матч с командой Германи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43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21 из 32 видов спорта. Их цель - завоевать не менее пяти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Бадминтонисты, стрелки, лучники, пловцы и дзюдоисты тренируются в спортивном лагере в парижском пригороде Фонтенбло. Поздне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в Париж приду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прыжкам в воду, тхэквондо и конному спорту.

КНДР отправила на Олимпиаду в Париж 16 спортсмен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м комитете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24 го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ислала в Париж 16 спортсменов, в том числе, четверых мужчин и 12 женщин. Он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семи видам спорта - спортивной гимнастике, лёгкой атлетике, боксу, дзюдо, настольному теннису, борьбе и вод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плавание и прыжки в воду). Больше всего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борной борцов - пять челове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е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я в Олимпиаде 2020 года в Токио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приостановил квалификацию её о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запре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2022 года в Пекине **RKI**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смена началась в детском лагере «Сондовон» в КНДР

СЕУЛ, 25 июля. /ТАСС/. Церемония начала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смены прошла в детском лагере «Сондовон» в КНДР 24 июл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Агентство отметило, что смена началась в обстановке «всестороннего развития традиционно дружеских и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Под музыку был поднят флаг «Сондовона». По данным ЦТАК, это перва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ая смена в этом дет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ЦК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оюза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молодежи Ким Сон Иль, руководящие работники профильных органов. Ким Сон Иль и начальник лагеря выступили с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отметив, что смена началась примерно через месяц после саммита РФ и КНДР в Пхеньяне,

который прошел 19 июня. По их словам, дети «закалят свое тело и дух, проведут веселые дни». Они выразили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совместное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е укрепит чувство дружбы и оставит о себе незабываемые воспоминания у детей.

В ходе церемонии прошли выступления духового оркестра школьников и марш отдыхающих. Во время смен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дни двух стран, конкурс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кружки, в том числе тхэквондо.

Российская дет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ибыла в КНДР 22 июля. Поездка в лагерь «Сондовон» началась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мены с экскурсий по столице. Дети посетили современную улицу в районе Хвасон, кегельбан и аквапарк. По данным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Пхеньяне,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ключены более 250 школь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ореец признан человеком с самым высоким IQ в мире

Ким Ён Хун признан человеком с самым высоким IQ в истории, набрав 276 баллов на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запоминанию, сообщил в прошлый четверг организатор соревнований, Всемирный совет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спорта! «Всемирный совет п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настоящим признает Ким Ён Хуна человеком с самым высоким IQ в мире и поздравляет его»,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организатора соревнований.



«В будущем я хочу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помогать людям по всему миру улучшать сво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используя свои таланты», - сказал Ким после объявления.

35-летний выпускник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се в Сеуле - единственный кореец, входящий в Мега- и Гига-общество, куда принимаются только люди с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ысоким IQ, сообщает Korea Herald. <https://t.me/saramkor>

12-часовой допрос жены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куратурой спровоцировал скандал

Следователи прокура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вели длительный допрос супруги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я Ким Гон Хи. Хот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РК явно не желала делиться подробностями этого не самого приятного как для лидера страны, так и его ж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но журналистам удалось выяснить подробности, что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скандал уже внутри самой прокуратуры. В отношении Ким Гон Хи ведется следствие о получении дорогих подарков и подозрений в манипуляции с акциями.

Сомнительная по части репутации известность выпала на долю Ким Гон Хи. Она стала первой в ис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упругой действующего лидера страны, которую допрос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еульской прокуратуры. Общение Ким со следователями состоялось в воскресенье 21 июля и длилось 12 часов. Впрочем,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такие длительные допросы - обычное дело в РК для громких дел, и протекают они, как правило, с перерывами, позволяя участникам отдыхать.

К первой леди Южной Кореи у прокуроров было два вопроса. Первый касался обстоятельств и причин получения ею в но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рогой брендовой сумочки Christian Dior стоимостью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в качестве подарка от знакомого пастора, который договорился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записавшими весь процесс на скрытую видеокамеру. Хотя помощники Ким Гон Х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рекомендовали ей вернуть сумку в тот же день, но женщина это не сделала. Это привело к иску в отношении нее и президента с обвинениями в получении взятки и нарушении закона по борьбе с коррупцией.

Вторая часть претензий касается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ей истории с манипуляцией акциями компании Deutsch Motors, являющейся дилером автомобилей BMW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Ким Гон Хи подозревают в том, что в период с 2009 по 2012 гг. она была замешана в незаконных действиях с акциями.

Адвокат первой леди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что Ким Гон Хи обстоятельно ответила на все вопросы.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же отказались предоставлять какие-то подробн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лавшись на его деликатный характер.

Однако допрос, который сам по себе уже стал сенсацией и оказался первым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для полит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спровоцировал еще более серьезную шумиху, когда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некотор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общения Ким со следователями. Оказалось, что вопреки правилам жену президента не вызывали на допрос в прокуратуру, а следователи пришли к ней, так сказать,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и общались в одном из зданий Службы охран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идера страны.

Это немедленно вызвало скандал, так как тут же последовали обвинения в стиле, что "закон не для всех одинаков", так как, допустим, к рядовому корейцу вряд

ли придут следователи, скорее, вызовут повесткой к себе в офис.

Шумиха стала еще громче, когда стал очевиден раскол в рядах самой прокуратуры. В понедельник генеральный прокурор Ли Вон Сок принес народу извинения за "привилегии", которые получила первая леди в ходе обстоятельности допроса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Я сам неоднократно публично заверял сограждан, что у нас в стране все равны перед законом и исключений нет ни для кого. Вынужден признать, что в ходе допроса супруги президента этот принцип не был соблюден. Приношу за это свои искренние извинения", - заявил Ли. Он пояснил, что ему доложили о допросе и том, как и где он проходил, слишком поздно, а потому он не смог отреагировать. Слуга закона признал, что это не снима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с него, так как он, как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вечает за все действия свои подчиненных.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СМИ, руководитель Сеульской прокуратуры лично доложил генеральному прокурору о ситуации и извинился за допущенные ошибки.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идея с "допросом по вызову" стала продуктом "креатива" следственной группы Сеульской прокуратуры и ее руководителя Ли Чхан Су. Широко известно, что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Юн Сок Ёль - сам, кстати, в прошлом прокурор - очень чувствительно реагирует на шумиху вокруг жены и крайне недоволен тем, что прокуратура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вынуждена была под давл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заняться делом первой леди.

Политологи же уверены, что разговор идет не о какой-то "случайной ошибке", а о расколе, который наметился в самой прокуратуре, где одн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стаивают на равенстве всех перед законом, а другие пытаются учитывать настро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Очевидно, что столичные следователи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ли, что генпрокурор заставит их вызвать жену президента в прокуратуру, что тут же вызовет мегасенсацию среди журналистов, жаждущих сделать фотографии первой леди в такой неприглядной для нее ситуации. Потому-то и доложили о "допросе с выездом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тогда, когда ничего уже нельзя было исправить. Многие теперь ожидают, что либо генпрокурор либо начальник Сеульской прокуратуры подадут в отставку в связи со скандалом.

В любом случае вся эта ситуация еще больше осложнила жизнь президенту РК Юн Сок Ёлю. Напомним, что недавно тюремный срок за финансовые махинации получила его теща, в апреле с "разгромным счетом"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проиграла всеобщие выборы, а на днях парламент страны, где доминирует оппозиция, начал рассмотрение народной петиции, быстро набравшей более миллиона подписей, о досрочной отставке президента Юна. Теперь же еще допрос жены, причем с новым скандало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ремонт дворов в 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б отставании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от графика ремонта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онтроль за выполнением районов программы по ремонту дворов возьмет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ЖКХ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доложила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о ремонте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этом году запущена новая трехлетняя программа по обновлению и установке детских игровых площадок. Новые игровые зоны должны появиться сразу на 39 территориях.

Однако в селе Рейдово в Курильске возникла задержка с установкой оборудования в связи со сложностями в логистике. Окончание работ перенесли на 3 августа. В то же время, муниципалитет отстает по темпам выполнения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дворов. Сроки также сдвинули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й период. Всего к обновлению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осемь территорий, однако ни на одной из них работы не завершены.

Возникла задержка, потому что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капитальным ремонтом проходит замена инженерных сетей. В Горном есть проблема сразу с 3 домами. Экскаватор приступил к земляным работам и сломался. Когда его починят, он возобновит работы, потом останется заливка бетона. Все адреса находятся в работе, но сроки сместились, - сообщила Анна Оськин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 срочном порядке ускорить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и завершить намеченное в строго обозначенные даты. Замечания взяты в работу. Ситуация находится на личном контрол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ра ЖКХ.

Ваши объяснения не приняты. По обоим видам работ вы единственные стоите в красной зоне, срывая сроки. Надо исправляться. Тем более, что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для нас имею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и важно, чтобы люди жили в комфортных и благоустроенных условиях. Чтобы гарантировано довести работы до логического завершения в нужный срок, я даю поручение подключиться профиль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заказчиком является муниципалитет,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т как раз тот случай, когда необходимо подставить ему плечо и обеспе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нтроль, - подытож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роме того, в 678 двора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запланирован текущий ямочный ремонт.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на 651 территории. Однако сразу в трех област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сроки окончания ремонта сместили на более поздний срок.

По югу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выполнили планы, по северу - по срокам должны были завершить до 1 июля, но тр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еще не закончили программу по текущему ямочному ремонту - это Ноглики, Углегорск,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Должны были выполнить 9, 15 и 17 дворов до 1 июл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 Ногликам и Углегорску срок окончания - до 1 августа, по Южно-Курильску - до 15 августа, - сообщила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о всех тр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ускорят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Ремонты завершат в строго обозначенные срок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бновленным графиком.

Отметим, всего в текущем году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187 дворов. Сегодня работы завершили на 11 территориях.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ить программу должны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Ямочный ремонт также практически завершен во всех дворах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специалисты выполняют работы картами, что позволило увеличить ремонтируемые площад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ят меры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объектах энергетики и ЖКХ

Вопросы повышения защищенности объектов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объектов водоснаб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й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зоне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 нефтегазодобывающие предприятия, ТЭЦ,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водозаб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На объектах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будут модернизированы инженерно-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охраны и системы физической защиты. Будут приняты меры для повышения защищенности объектов от актов незаконного вмешательств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Пройдут внеплановые инструктажи и проверка знаний персонала.

В условиях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тем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ъектов энергетики и ЖКХ не теряет актуальности. Необходимо внедрять самые современные метод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защищенности, чтобы предотвратить атаки неприятеля.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егодня приобретают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развитие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и систем распознавания и уничтожения вражеских дронов,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рассмотрели также вопросы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терроризму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и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ровнях и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в отношении мигрантов.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и органами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проводить мероприятия с лидерами религиозных, культурно-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этнических диаспор, общин и землячеств по своевременному предупреждению и недопущению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и меж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ов.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 контроль за работой неформальных бойцовских клубов и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созданных по этническому или религиозному принципу.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также включат комплекс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форме лекций, семинаров, викторин, кинопоказов,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встреч с экспертами. Они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на разъяснение преступной сущност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украинских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х и неонацист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Кроме того, на заседании обсудили результаты исполнения Комплексного плана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идеологии терроризм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24-2028 годы.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л совместный прием пациентов и проводников здоровья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мог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решить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возникают у сахалинцев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пациентке с несколькими диагнозами назначили проводник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вести ее по всем профилям. Другим пациентам помогли записаться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получить техн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реабилитации и устроить ребенка-инвалида в центр «Преодоление».

У жительни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арии несколько слож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ей необходимо постоянно наблюдаться у кардиолога, эндокринолога и травматолога.

За полгода мне позвонили три человека. Я не понимала, кто мой проводник и как 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ой услугой. И только сейчас у меня появилась Татьяна, я могу ей написать на телефон. Надеюсь, что мы сработаемся, и мне будет проще решать медицинские вопросы, - поделилась пациентка.

Сложности возникли из-за того, что Марии назначили проводников по каждому из диагнозов. Потом произошла ошибка системы, и южносахалинка н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осталась без вним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ора.

Это неприятная ситуация! Люди, которые имеют несколько заболеваний, заслуживают особой заботы. Для пациентов со сложными диагнозами необходимо составля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лан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Один проводник должен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по нескольким медицинским профилям,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ругая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традающая хронической гипертензией, узнала о проекте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из новостей. Наталья сама позвонила на 1-300 и услышала, что персональный помощник ей не положен.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пациентка наблюдалась у кардиолога в частной клинике, 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е было ее медкарты.

Все данные должны быть в еди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истеме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где человек проходит лечение. Если бы проводник связался с пациенткой, проявил участие, записал на прием, ей, возможно, и не захотелось бы обращаться к платному врачу,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еперь у Натальи появился персональный помощник по медицинским вопросам. Также южносахалинке помогли устроить ребенка-инвалида на реабилитацию в центр «Преодоление».

На встреч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инвалида первой группы Ирину Николаевну записали на прием к главному онколог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пенсионерки также организуют телемедицинск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с ведущ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России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тправят на лечение в Москву.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помогли решить и вопрос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реабилитации подходящего размера.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обратилась также жительница Дальнего Елена. Он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у них с мамой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был один проводник здоровья по профилю эндокринология.

Александра - прекрасный отзывчивый специалист, всегда очень помогала нашей семье. А теперь маме поставили кардиологический диагноз и забрали от Александры. Очень прошу вернуть ее, - обратилась к губернатору сахалинк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держал Елену и отметил, что, если у нескольких членов семьи есть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за всеми необходимо закреплять одного помощник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диагноз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пациентка также поделилась, что из-за изменения размера ее дочери-инвалиду не выдали памперсы в этом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решить вопрос в ручном режиме и обеспечить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Напомним, проект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был запущен в 2023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700 администраторов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взяли под крыло 150 тысяч пациентов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ерсональные помощники напоминают людям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сетить доктора или сдать анализы, помогают получить льготные лекарства и адресно решают другие медицинские вопросы.

Сахалинские мэры рассказали, какие дороги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за неделю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или контроль за ремонтом и содержанием дорог.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еженедельно инспектируют ход дорожных работ и рассказывают о результатах в соцсетях.

«Качественное содержание дорог - одна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которую перед нами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дормониторинга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т выездные проверки улич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и выдают подрядчикам предписания об устранении нарушений. Летом дорожные службы обязаны не только поддерживать чистоту на проезжей части и тротуарах, обновлять разметку по мер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о и скашивать траву на нормативных улицах,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движения. Также мы контролируем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которые финансируются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ажно, чтобы они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в срок и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технологий»,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В Углегорске на минувшей неделе провели профилирование грунтовых дорог на улицах Красный Пахарь и Красноармейской, а также в Шахтерском переулке, а по всему городу - очистили асфальт от грязи и пыли с помощью спецтехники. В районе БУМа между магазинами «Стимул» и «Сфера» дорожные службы нанесли новую разметку. https://t.me/adm_uglegorsk/10382

Шли работы и в Шахтерске - на ответвлении улицы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й между ул. Октябрьской 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уложили асфальт. В августе здесь полностью заасфальтируют участок от кафе «Центр» до плиточного тротуара https://t.me/adm_uglegorsk/10406

В Холмске продолжается капремонт улицы Советской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Безопасные качественные дороги».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л к демонтажу железобетонных плит в районе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на улице Лесозаводской, 1.

Идет процесс установки бордюрного камня от дома №122 по улице Советской в северную часть города. Также, вдоль дороги, прилегающей к территории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иблиотеки имени Ю.И. Николаева, будет обустроен парковочный карман, - сообщил глава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https://t.me/d_lubchinov/7802

Мэр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Светлана Швеиц и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Сахалинавтодора Игорь Калашников провели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в селе Песчанском. Визит организовали по просьбе сельчан, у которых возникли вопросы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искусственной неровности на улице Центральной.

«Сооружение должно заставить водителей транспорта снижать скорость, однако на деле это не совсем так.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установ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лежачего полицейского» в этом месте. Документы на согласование уже направлены в областную ГИБДД», - рассказала Светлана Швеиц.

Такж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была затронута тема будущего капремонта ул. Центральной, который предполагает установку уличного освещения и перенос автобусных остановок. До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ных работ в Песчанском проведут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суждения. <https://t.me/smsmvets/3490>

В Тымовском приступили к устройству тротуара на улице Торговой с обустройством пешеходного перехода и светофора на ул. Октябрьской.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в рамках госпрограммы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сель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По этой же программе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реализуют еще несколько проектов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среди которых установка освещения на дороге, ведущей к улицам Гагарина и Лесной в селе Восход и ремонт 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на ул. Юбилейной в селе Красная Тымь. <https://t.me/tymovskadm/9415>

В Долинске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приступили к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федеральной автомобильной дороги на ул. Горького в Долинске.

«На самом путепроводе задействованы две подря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дна занимается переносом магистральной теплотрассы, другая - устройством железобетонных опор путепровода. Работы иду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 графиком», - отметил глава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лександр Тугарев. <https://t.me/tugarevAV/3903>

Также в райцентре стартовал капремонт ул. Ленина на участке от пересечения с ул. Пионерской до ул. Вилкова. Помимо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я, здесь обустроят тротуар, лестничные сходы и пандусы, парковку возле детского сада «Улыбка», заменят линию освещения и выполнят озеленен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в этом году.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46개국 한글학교 교사들, 고국서 한국 발전상 체험-이해 연수

재외동포청, 교육관계자 232명 초청해 역량 강화 교육 22일 인천서 개막

전 세계에서 차세대 정체성 교육을 위해 애쓰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초청으로 고국을 찾아 한국어 교수법을 배우고, 한국의 발전상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재외동포청은 22일부터 6일 동안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는 전 세계 46개국 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 23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3주 동안 온라인 사전 연수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역사 교수법을 집중적으로 배웠다.

초청 연수 기간에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한 한국어 교수법 등을 집중적으로 실습하고, 교사 스스로가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차세대 동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시관 관람 등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5개의 전체교육, 5개의 분과 교육, 지역/종합 토론, 한국의 발전상 체험, 초등학교 수업 참관 등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 참석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력 신장에도 도움이 되기에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했으며 지원을 확대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이 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한글학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하는 '한글학교 간담회 건의사항 피드백' 세션이 진행되었다.

한글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정책에 실제로 반영하며 실행하겠다는 재외동포청의 소통 의지가 담겨 있다.

전체교육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특강 및 토크 콘서트, 수업 우수사례와 학교 운영 모범사례 공유,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방안에 대한 전체 토론 등이 마련된다.

○ 한글학교 교사들은 독일 출신 한옥 건축 전문가인 텐들러 다니엘의 '재외동포로서의 삶과 발전된 한국에 대해 느끼는 자긍심'에 대한 특강을 듣고, 조병영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진행하는 '한글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수업 전략'에 대한 토크콘서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 한글학교의 우수한 수업 사례와 학교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갖는다.

분과교육에서는 온라인 연수에서 학습했던 한국어 말하기와 글쓰기 교수법, 수업 활용도가 높은 에듀테크 활용 교수법 관련 실습 교육이 진행되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수업 운영법, 교장을 위한 학교 운영 컨설팅 등 참가자별 맞춤형 교육도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연수 3일차인 24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찾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하고, 다음 날 한국 발전상의 교육 방법 및 효과적인 현지 전파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도 했다.

지난해 연수 참가자들의 요청에 따라 연수 5일차에는 한국 초등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해당 교사와의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이기철 청장은 "한글학교를 통한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은 정부의 최우선 재외동포정책 목표 중 하나로, 우리청은 한글학교 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느낌으로써 차세대 동포들에게 이를 잘 교육하여 차세대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황소와 황새 그리고 한글

우리말에서 어떤 단어는 괜한 오해를 당합니다.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또는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달리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황소입니다. 우리는 황소는 당연히 누런색 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눈에 있는 소를 봐도 누런색이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니, 황소의 황이 누렇다는 의미의 한자 황(黃)일 거라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황소는 원래 누런색과는 관계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황소에 대한 의심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황새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황새는 누런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런색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새의 이름이 황새인 점은 매우 특이합니다. 황새는 흰색이 주를 이루고 날개가 검은색인 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이라고 부르는 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복원을 해서 되살리고 있는 새입니다.

황새가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큰 새입니다. 서있는 모습도 크지만 날개를 펴고 머리를 쪽 내밀고 나는 모습은 정말로 크고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 부여지역 백제문화 답사를 갔다가 충청남도 예산에서 황새를 보았는데 실로 매우 큰 새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새 중에서는 가장 큰 새입니다. 누런색과는 전혀 관계없고, 아주 큰 새라는 점이 황새라는 이름의 실마리가 됩니다. 황새는 원래 '한새'였습니다. 여기서 '한'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황소도 누런색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황소도 옛말에서는 '한소'였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싸우는 '한소'를 두 손으로 잡아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런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큰 소라는 의미였습니다. 크다는 의미인 한이 합쳐져서 한소, 한새였던 것인데, 아마도 황소는 소가 누런색인 게 오해를 부른 듯합니다. 한새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떨어져서 황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말에서 한은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은 한가람이라고도 하는데, 큰 강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름인 한도 크다는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글도 큰 글, 위대한 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 한글 등으로 보면 우리를 나타내는 말은 크고 위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다가 많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다는 의미는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하고 많은'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라는 말의 '하고'가 사실은 많다는 의미입니다. '많고 많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조할 때 쓰는 말인 '하도' 역시 많다는 크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도 커서, 하도 많아서'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숨을 들 수 있습니다. 한숨은 큰 숨을 쉬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안도할 때 저절로 큰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어휘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한어머니, 한아버지'였습니다. 큰 어머니,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발음이 어려워서 부드럽게 바뀌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황소, 황새, 한글, 한숨,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같은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청소년·청년들, 모국 체험 나선다

재외동포청, 22일부터 한 달간 8개국 32명 대상

'한국 이해과정' 시작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22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모국 체험에 나선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8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과 청년 32명을 대

상으로 8월 23일까지 '한국이해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을 운영하는 경인교육대학교는 교육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

키고, 국악과 태권도 등 한국의 전통문화와 K-팝 등 대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 발전상에 대한 특강을 듣고, 우리나라 산업 현장을 시찰하며, 방송국도 견학할 예정이다.

이기철 청장은 "이번 한국 이해과정은 차세대 고려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모국과 거주국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36개국 300명 차세대동포, 제2차 모국 초청연수 참가

재외동포협력센터 주관, 23일부터 일주일간

전세계 36개국에서 온 약 300명의 차세대 동포들이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하는 제2차 모국초청 연수에 참가한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2024 제2차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가 7월23일 인천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일주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36개국에서 방문한 재외동포 293명과 국내 152명 등 약 450명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은 모국 대한민국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연수 참가자의 ▲한인 정체성 및 자긍심 함양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 ▲한국 발전상 이해 ▲국내외 차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장 지원 등 연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성훈),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협력해 다양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 7월 15~21일 '제1차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은 "현 정부들어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명실공히 '차세대동포의 한인정체성 함양 전문기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하는 '2024 제2차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개막식이 7월 23일 인천에서 열렸다. 사진은 개막식 모습.

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실질적인 차세대동포 연수프로그램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면서 "모국 연수를 경험한 차세대동포들이 앞으로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Хочется пожелать нашим ребятам хорошего отдыха, чтоб было много запоминающихся событий. Мы с командой постараемся это обеспечить. Хочу выразить благодарность нашему коллективу - тем, кто вложил душу в его подготовку и тем, кт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смены будет в нем трудиться!» - 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Фрегата» Алексей Горожанкин.

Традиционно дети и их наставники-вожатые дали клятву, показали творческие номера и прошли квест,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специалистами район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лагере 50 мальчишек и девчонок проведут две недели. Они будут изучать родной край, ходить в экскурсии по Кунаширу,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соревноваться, купаться в море и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у костра.

네벨스크에서 <사할린 참치의 날> 경기 진행

제2회 <사할린 참치의 날> 경기가 8월 9일(금)-11일(일)까지 사할린 지역에서 진행된다.

지역 경기는 네벨스크의 '월로눔' 휴양지에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데 경기의 목적은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낚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낚시 취미를 대회로 바꾸는 것이다. 참치는 사할린 수역에 아주 오래전부터 진입하고 있어 4년 전부터는 전문적으로 참치잡이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에 소형 및 고무 함대에서 30명의 선원들이 참가한다. 1팀이 최대 6명으로 구성되며, 경기에서 1위, 2위, 3위를 차지한 참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은 <가장 큰 참치> 부문 경쟁에도 참가할 수 있다.

올해 총상금은 30만 루블리로 소형 함대의 1위는 15만 루블리, 2위는 10만 루블리, 3위는 5만 루블리며, 고무 함대의 1위는 10만 루블리, 2위는 6만 루블리, 3위는 3만 루블리를 받게 된다. 경기 참가팀들이 바다에서 조업하는 동안 관람객들은 다양한 경연과 활동교실들, 일본 요리사가 준비하는 참치

해체에도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В Невельске пройдет турнир «День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нца»

Второй турнир «День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нца» пройдет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 9 по 11 августа 2024 года.

Турнир в регионе пройдет уже во второй раз на площадке базы отдыха «Волнолом»(Невельск).

Идея турнира — превратить хобб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высить интерес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Сахалина к рыбалке. Тунец заходит в островные воды уже очень давно, 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добывать эту рыбу начали 4 года назад.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участие в турнире примут 30 экипажей как маломерного, так и резинового флота. В команде может быть максимум 6 человек. Кроме первого, второго и третьего места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также побороться за номинацию «Самый крупный тунец».

В этом году общий призовой фонд составляет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маломерного флота: первое место – 150 тысяч рублей, второе – 100 и третье место – 50. Для резинового флота: первое место –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второе – 60 и третье – 30.

Пока команды находятся в море, зрители смогут посетить различные конкурсы 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разделке и приготовлению тунца от японского шеф-повара. Для детей также запланирована обширная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사할린의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무료 웹 디자인 교육

디지털 생태계가 사할린주 <M 세대> 온라인-플랫폼에서 2차 웹디자인 학교를 시작한다.

이 무료 프로그램은 초급과 고급 수준의 학생들을 고려해 만들어졌으며, 웹사이트 개설에 대한 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강의는 경연 과제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경연 결과에 따라 '대학생' 부문의 최우수자는 MTC 회사 견습생으로 초대된다.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들은 강의 난이도에 따라 초

급 또는 숙련된 디자이너 중 필요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전문 웹-디자이너의 직업을 알아볼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브리핑, 리서치(마케팅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과 탐색의 과정)와 스토리텔링을 알려주며, 틸다(Tilda)와 피그마(Figma) 프로그램으로 작업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디자인, 상호작용 요소, 레디맥(Readymag) 프로그램 기능으로 작업하는 능력 등으로 심화학습이 제공된다.

온라인-교육과정에는 11개 강의가 포함되었다. 교육과정 마지막에는 대학생들에게 경연 과제가 주어지는데 이는 MTC 환경시스템의 결과물들 중에 하나를 위한 웹사이트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бесплатно обучат веб-дизайну

Цифровая экосистема запуска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торой поток школы по веб-дизайну на онлайн-платформе «Поколение М». Бесплат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ссчитана на школьников с начальным и продвинутым уровнями знаний и включает уроки по созданию веб-сайтов. Курс завершается конкурсным задание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торого лучших «студентов» пригласят на стажировку в MTC.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может выбрать необходимый ему уровень сложности курса: новичок или дизайнер с опытом. На базовой программе школьники знакомятся с профессией веб-дизайнера, узнают для чего нужен бриф, ресерч и сторителлинг, учатся работать с программой Tilda и Figma. Для ребят с опытом погружение — адаптивный дизайн, интерактивные элементы,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с функциями программы Readymag.

В онлайн-курс вошли 11 уроков. В финале курса студентам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о конкурсное задание —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оздать сайт для одного из продуктов экосистемы MTC.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онус редактиру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ассрочк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